

3. 도서관 업무 소개

(특별사업)

(1) 사서과 사업

(ㄱ) 종합제본 사업

서울대학교 부속도서관 분관규정 제 6 조에 「분관장은 보관 장서중 보관및 이용으로 인하여 도서가 오손될 때에는 이를 부속도서관장에게 수리 제본을 요구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나 예산관계상 지금까지 거의 실행되지 못했다. 그러나 도서의 파손이 늘어가고 제본해야 될 잡지가 증가함에 따라 이 사업을 진행시키지 않을 수 없어, 70년도 2학기부터 종합제본 사업을 시작했으나 별로 큰 실적을 내지는 못했다. 금년에는 학생 자율적 경비로서 이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게되어 1 학기에 부속도서관분 633책, 각 분관분 2,133책, 도합 2,766책을 제본할 계획이다.

(ㄴ) 규장각도서 중국본 목록 발간사업

부속도서관에는 134,930책의 奎章閣圖書(舊王室圖書)가 수장되어 있는바 1963년부터 하바드燕京學會(Harvard-Yenching Institute)의 원조로 그 정리에 착수하여 1967년에 이를 완료하였다. 그중 한국본은 등사판으로 인쇄되었으며 그후 동아문화연구소에 의하여 활판으로 인쇄되었다.

그러나 규장각 도서중 중국본에 대한 카드 目錄은 편성되어 있으나, 아직 이를 책자로 발간치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5,601부 62,082책에 달하는 중국본 목록을 책자로 발간함으로써 연구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ㄷ) 종합목록 사업

서울대학교에는 부속도서관 외에 14개 분관 및 7개 도서실이 설치 운영

되고 있다. 그러나 각 분관마다 도서를 정리 분류하는 면에 있어서 상이한 점이 적지 않아 전교 종합목록 편찬이 거의 불가능한 상태에 있었다.

종합목록 편찬은, 닥아오는 서울대학교 종합화에 대비한 필요 불가결한 사업이므로, 1969 학년도부터 3 個年사업으로 계획하고, 분관장서중 미정리 분과 재정리할 도서등을 포함하여 통일 방식에 의하여 정리하고 있다. (도표 참조)

제 2 차년도분 종합목록사업실적

기 관 명	정리대상책수	정리책수			비 고
		동서	양서	계	
문 리 대	13,983	3,213	10,668	13,881	정리대상책수와 정리책수에 차 이가 있는 것은 점점시의 점점 수자 계산착오, 중복등으로 인 한 것임
치 대	3,185	837	2,348	3,185	
미 대	939	366	531	897	
교양과정부	2,270	1,327	866	2,193	
신문대학원	1,477	335	1,082	1,417	
음 대	4,288	964	2,863	3,827	
약 대	2,816	1,285	1,444	2,729	
계	29,008			28,129	계획량 30,000책분에 대하여 93.4(%)로 2차년도분 완료

제 3 차년도분 종합목록사업계획

(자 1971. 3. 1~지 1972. 2.28)

기 관 명	정리대상책수	비 고
보 건 대 학 원	748	743책 정리완료(71. 6.1 현재)
어 학 연 구 소	1,010	958책 " (")
행 정 대 학 원	15,570	} 정리중
농 과 대 학	31,427	
학생지도연구소	1,855	미정리
생 약 연 구 소	387	"
계	50,997	금년도 계획분 30,000책에 대하여 169.9(%)에 해당

(2) 열람과 사업

(7) 도서 전시회

a) 故 람스테트 박사 20주기 추도기념 전시회

한국어학의 세계적인 권위이며 이를 세계학회에 소개한 알타이어학자 람스테트박사의 공적을 추념하기 위한 기념행사로서 작년 12월에 본 도서관과 동아문화연구소 공동주최로 전시회를 가졌다. 전시도서로는, 몽고 남부에 징고르하류의 분지에서 도시폐허를 조사하여 발견한 漢文, 西藏文 및 西夏文의 古文書에 의해서 西夏王朝의 黨項文字을 해독할 자료를 처음으로 제시한 P.K. Kozlova의 *Mongolia u Amdo u Mertvyi Gorod Khara-Khoto, Moskva, 1923, 678p.* (몽고의 고도 및 사멸의 도시 카라호토)를 비롯하여 한국어 문법에 관한 연구논문 10여편을 포함한 토이기 및 몽고어 등에 관한 논문 서적 50여편을 전시했다.

이 전시회에는 약 350명의 내외학자가 참석했다.

b) 古代西洋法律도서 전시

중앙도서관이 소장하고 있는 古代 西洋法律도서를 1971 3.23—3.25일까지 3일간에 걸쳐 전시했다. 이들 법률도서는 한국에서 본 도서관이 유일하게 보관하고 있는 귀중도서로서 復古學派(Humanisten)의 수립자인 알치아트(Alciat, 1492—1550)의 전집을 비롯하여 190권에 달하는 문헌이다.

이 전시회에는 약 300여명의 내외학자들이 참석하여 성황을 이루웠다.

c) 한국 古地圖 전시회

중앙도서관이 소장하고 있는 고지도 일부를 표구하여 금년 7월경에 전시회를 가질 예정이다. 이번에 전시되는 古地圖는 謙齊(1676—1759)의 작품이라고 전해지는 도성도를 비롯하여 100여점에 달한다.

(L) 장서점검

a) 규장각 장서점검

규장각도서의 분실을 방지하고 파손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 금년 3월

부터 내년 2월까지 1년간에 걸쳐 장서 점검을 진행하고 있다.

이 장서 점검이 끝나는 대로 신규 규장각 도서 목록을 작성할 예정이다.

b) 규장각도서 도서번호표(label) 개칭

규장각도서는 1910년 조선총독부에서 이를 접수하여 분류정리되지 못하고, 수입순 일련 번호로된 도서번호표를 첨부하였던 것이, 1930년 이 도서가 본교의 전신인 경성제국대학 부속도서관으로 이관된 뒤에도 도서번호표는 그대로 두었고, 1945년 8월 15일 해방후 오늘에 이르기까지 조선총독부의 도서번호표를 그대로 사용하여 왔던 것이나, 이번에 서울대학교 도서번호표로 바꾸게 되었다. 이사업은 1972년 3월 20일에 끝나게 될 것이다.

(3) 조사과 사업

(ㄱ) 서울 대학교 “외국학술잡지색인” 발간

도서관에 수집 정리된 자료와 시설의 利用에 있어서는 이를 이용하는 사람들의 편의가 최대한으로 도모되어야 하며, 학내의 인사들의 조사 연구를 돕기 위해서 매우 정확하고 새로운 자료를 가장 빠른 시일안에 제공함은 현대도서관의 주요 사명의 하나이다.

이러한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서 본 조사과에서는 '69학년도부터 도서관 삼대사업의 하나로서 “외국학술잡지색인”을 계간으로 발간하고 있다. 이 외국학술잡지 색인은 부속도서관 및 각 분관과 산하연구기관에서 구독하는 인문사회계 외국 학술잡지에 대한 종합적인 색인으로서, 국회도서관에서 발간하는 “국내간행물기사 색인”과 한국과학기술 정보센터에서 발간하는 자연과학계 “과학기술문헌속보”와 더불어 학생 및 교수들에게 많은 자료를 제공하고 있다.

(ㄴ) 속독대회

대학교육의 근본목적의 하나가 학생들로 하여금 진리탐구에 정진케 하는데 있다면 오늘날 학문의 발달과 더불어 점차 증가해가는 서적과 자료의 양에

비례한 학생들의 독서력 향상도 필수적으로 요구되고 있다.

특히 매스컴의 발달과 국제교류의 원활 그리고 과학의 눈부신 발달을 통하여急速히 增加하고 있는 讀書자료의 즉각적인 처리는 학문연구의 기본적인 요건이 되고 있다. 이 현상에 부응하여 작년에 한국에서 처음으로 속독대회를 개최한 바 많은 학생들이 호응하여 이 방면의 관심을 더욱 크게 한바 있다. 금년에도 국어부와 영어부로 나누워서 속독대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ㄷ) 도서관보 발간

1963 년도에 처음으로 「圖書館報」를 발간한 이래 매년 1 회씩 관보를 발간해 왔다. 이 관보에는 주로 古書소개를 중심으로하여 도서관에 관한 여러소식을 실어왔던 것인데 68년부터 제호를 바꾸어서 「書齋의 苑」이라하고, 일반 학술논문을 보다 많이 게재했었다.

70 년도에는 여러가지 사정으로 因하여 「書齋의 苑」이 중단되지 않을 수 없었는데, 이번에 다시 「도서관보」를 부활하여 연 2 회 발간키로 하였다.

(ㄹ) “도서관 이용안내” 발간

중앙도서관 및 각분간의 연혁, 장서의 수와내용, 도서관 이용법, 열람용 목록등을 소개하여 신입생들의 도서관 이용을 돕기위해서 도서관 이용안내를 4,000 부 발간하여 신입생에게 배부하였다.

64년도에 한번 발간한 바 있으나 이번에 내용을 보다 풍부히하고 도서관의 전반적인 이용에 대해서 상세한 안내를 하였다.